

01 교회소식

하나님의 자녀 된 축복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만 해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02 생명의 말씀_ 신년기도제목 시리즈 4

재창조의 권능

목자의 회생과 헌신을 통해 얻은 재창조의 권능은 마지막 때 어떠한 영혼이라도 할지라도 새롭게 변화시켜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

03 기획특집

전도 잘하는 방법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마땅히 해야 할 성도의 의무인 전도, 전도를 잘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04 간증

“변화되지 못할 영혼이 없어요”

불교도 시부모가 극적으로 전도된 네팔의 아버지가일 따라 성도와 생명의 말씀을 통해 축복받은 이정길 집사 간증.

만민뉴스

제670호 2015년 1월 25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누구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작은 순종의 행함을 통해 곳곳에서 들려오는 성도들의 축복 소식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료들을 아끼며 섬기고자 했을 뿐인데
‘2014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돼 국무총리 상까지





“참 안식을 누리는 축복 주셨어요”

회개하고 결단한 뒤 온전한 주일성수 시작하니
마음에는 평안, 일터에는 축복 임해

“협력해 선을 이뤄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잠잠히 기다렸더니
전화위복의 축복으로 십일조 늘어



교회는 성도들의 영혼이 잘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매주 훈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 말씀을 듣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의 간증을 소개한다.

서울 경찰청 기동본부 경위로 근무하고 있는 최덕영 성도(54, 사진 윗줄)는 직업의 특성상 온전한 주일성수가 쉽지 않아 늘 죄송한 마음이었다. 그러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는 성도로서 행할 바는 행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시위 현장에 투입되는 기동 장비를 자청해서 점검하고 모든 일에 출근수범했다. 그러자 지난해 12월 31일, 그는 전국 경찰관 중에 100여 명을 뽑는 ‘2014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돼 국무총리 상을 받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힘내서 달려가라고 주신 상이구나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최 성도는 “12년 전, 말라리아에 걸려 위태로울 때 당회장님의 기도로 치료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 사고 현장과 집회 시위 현장에 출동할 때도 당회장님 기도가 있어서 항상 든든하지요.”라며 당회장 이재록 목사와 기도로 내조해 준 가족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한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근무하는 오상훈 성도(55, 사진 가운데줄)는 주일성수를 통해 큰 축복을 받았다. 사회생활을 핑계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며 장결자로 있던 오 성도는 2012년 4월 아들의 질병을 통해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중심으로 회개하고 결단했다.

이후 틈나는 대로 성경과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신앙서적을 읽으며 말씀을 사모하게 된 그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며칠씩 지방출장이 있지만, 그때마다 KTX를 타고 상경해 주일을 지키고 있다. 그러던 지난해 12월 31일에는 스마트 미디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상을 수상하는 축복까지 받았다.

경기도 양주 시에서 15년째 영양 솔부추를 재배하는 송원규 집사(46, 사진 아랫줄)는 영양 솔부추 분야에서 친환경 경 첫 유기농 농업 실현에 선구자적 역할을 한 공로로 지난해 12월 31일에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 특별한 상이 송 집사에게 더욱 뜻 깊게 느껴지는 것은 지난해 4월, 영양 부추 출하를 3일 앞두고 벌어진 일 때문이다.

“상품 출하를 위해 250가지 테스트를 받았는데 두 가지 항목에서 이상 성분이 검출된 거예요. 농약을 한 방울도 쓰

지 않았기에 당황스러웠지요.”

기로에 놓인 송 집사는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잠잠히 기다렸다. 그러던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불시 검사를 통해 부자재의 문제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규모가 더 큰 판매처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이 이뤄졌고, 기존 거래처에서도 다시 공급해도 좋다는 연락이 왔다. 송 집사는 전화위복으로 십일조가 늘어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다.

사람이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봉착할 때도 있지만, 악으로 대항치 않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비취 보며 선한 길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협력해 선을 이뤄주신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열심내지 못해 하나님 앞에 심히 민망할 때에도 작은 순종의 행함을 통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신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작은 행함을 통해서도 잘 했다 칭찬해 주시고, 세상의 온갖 사건, 사고, 재난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사랑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 된 축복이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창세기 1:3)

재창조의 권능

창조의 권능을 베풀어 주기 원하셨습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다시 구원의 기회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근본 사랑이지요.

재창조의 권능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됐고, 저는 이 권능을 받기까지 철저히 자신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롬 6:23)이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려면 누군가 대신 공의 값을 치르는 희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죄의 삯은 사망’이라는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함이지요. 또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보혈을 흘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공의가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공의를 만들기 위해서도 그에 맞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4년간 몸과 마음으로 심한 고통을 받아야 했고 고통이 가중될수록 공의는 넓어졌지요. 이렇게 넓어진 공의 범위 안에는 교계와 세계의 많은 영혼도 담기게 됐습니다. 이 권능이 임하면 두려움 속에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느낌으로 마음이 녹아져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재창조의 권능이 어떻게 심령을 변화시키는지 에스겔 3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자 마지막 때에 나타날 재창조 권능의 역사에 대한 예언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했지요(겔 36:26). 악으로 단단해진 마음도 재창조의 권능으로는 부드럽게 바뀌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에스겔 37장에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 군대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명대로 대언하니 뼈들이 연결되면서 큰 군대가 됐지요. 이것이 바로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마른 뼈’는 도무지 살 가능성이 없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오늘날 마른 뼈처럼 전혀 살 가능성이 없고 심령이 악하며 심히 타락한 영혼이 많지만 재창조의 권능으로는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2. 패역한 세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재창조의 권능’

1) 고과 알당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하는 사람들

고과는 레위인으로 성전을 섬기는 사명을 넘어 자기들도 제사장이 되고자 했습니다. 또한 다단과 아비람 일당은 모세가 애굽에서 자기들을 이끌어내 광야에서 고생시킨다며 고과와 함께 당을 짓고 대적했지요.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땅이 입을 열어 삼키는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민 16:32~33).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큰 죄가 있는데 바로 성령 훼방, 거역, 모독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성령을 훼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했습니다(막 3:29).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능의 종이 드러날 때에 마음으로 함께하는 이들과 반대로 시기하고 대적하는 이들로 나뉩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보아도 믿지 않고 오히려 악한 말로 판단 정죄하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지요. 이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같으므로 사함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회개해 구원 받도록 재창조의 권능을 허락하셨습니다.

2)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롯 유다처럼 성경을 속이고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들

가롯 유다는 사사로운 이익과 욕심을 위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힘 있는 위치에 오르면 자신도 덕을 보려는 속셈으로 돈궂고도 말고, 때때로 물질을 임의로 빼돌리기도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점점 자기 기대와는 다른 길로 가셨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은 삼십에 팔아넘겼지요. 그의 최후를 보면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했습니다(행 1:18).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 불같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은혜의 체험을 한 후 땅을 팔아 드리겠다고 했지만 일부만 드렸습니다. 이에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밝은 역사

가운데 이들을 꾸짖자 즉시 죽었지요. 마지막 때에는 교계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는 가롯 유다보다 더 악을 행하는 이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버리지 않고 사랑을 보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재창조의 권능이 사랑으로 역사되면 이러한 이들도 회개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3)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처럼 지식의 틀로 인해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구약 성경의 율법을 암송할 정도로 잘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참 뜻은 깨닫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알았습니다. 성령의 감동함으로 성경을 궁구했다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지식의 틀에 갇혀 성경을 보았기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계에는 “나는 오랜 시간 신학을 연구하고 묵화했으며, 누구보다 성경에 정통하다”며 자부하지만 정작 성령의 역사는 받지 못하는 이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가진 지식이 교만이 돼 임의로 판단 정죄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재창조의 권능으로 이런 사람들의 단단한 틀도 깨뜨리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풀어야 하며, 무수한 금식과 기도로 영계를 뚫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통을 이뤄 그 마음을 읽고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런데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영계를 뚫기 위한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에 그들이 하지 못한 그 분량까지 대신 감당했기에 이런 이들도 단단한 지식의 틀을 깨뜨리고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이르매 재창조의 권능으로 교계에 정화 작업, 개혁의 바람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분은 ‘만민’이라는 이름답게 전 세계 만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신속히 영적 장수로 준비되어 영광의 새해를 열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창조의 역사는 근본의 소리로 이뤄지는 권능입니다. 재창조의 역사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창조의 역사와 달리 있는 것을 새롭게 하는 역사이지요. 근본의 소리를 자유롭게 운용하면 마음에 품고 소리를 발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새해를 맞아 전 성도 기도제목 네 번째인 ‘재창조의 권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재창조의 권능이란 무엇인가

재창조의 권능이란, 비유 들어 아예 없는 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죽은 꽃을 살리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파손되거나 훼손됐을 때에 다시 회복시키며, 죽은 것을 살리고, 땅과 하늘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권능이지요.

그러면 죄악이 관영한 오늘날, ‘재창조의 권능’으로 새롭게 할 제1순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지만 아담의 범죄 후 그 형상을 잃어버렸고, 더구나 마지막 때에는 죄악이 관영해 구원받을 믿음을 갖기도 어렵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는 마지막 때 사는 이런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재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6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팀(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시열차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영혼 구원, 전도의 방법을 알아보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성령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전 1:21).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고전 9:16) 고백하며 이방인 선교에 힘썼다.

이처럼 전도는 성도의 의무임을 깨달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쓰며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기 바란다.

01 성령의 역사를 따라 전도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해서 담대함을 얻고 능력을 받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도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말과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고 고백했다(고전 2:4).

이처럼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령의 주관을 받아 상대가 생각을 깨뜨리고 믿을 수 있도록 그의 말을 사로잡아버리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갤 수 있고(히 4:12), 원수 마귀 사단을 능히 물리치고 대적해 분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받아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02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리의 메시지이다. 그러나 이 복음의 귀중성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는 아무리 전해 주어도

완강히 거부하기도 한다. 따라서 그들에게 억지로 비굴하게 전도할 것이 아니라 기회를 기다리며 스스로 깨우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교회의 특별한 행사에 참석하게 한 다든지, 설교 테이프나 책자를 권한다든지, 꾸준히 교회 신문을 전한다든지 해서 먼저 스스로 깨

우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뒤 평안한 때에 대화를 유도해 거부감 없이 복음을 받아들일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때 각기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고려해 말로만 증거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면 전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03 사랑과 관심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한다

기도와 아울러 필요한 것은 행함으로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고 모든 언행심사가 아름다우므로 상대가 감동함을 입게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상대가 믿고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항상 공손한 인사

와 말씨로 안부를 묻고 온유한 모습을 지님으로 상대의 호감을 살 수 있어야 한다.

때에 따라서는 음식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집안 애경사에 참여해 위로하고 기뻐해 주거나 힘든 일을 도와주어 상대가 고마움을 느끼고 기쁨을 가지도록 한다. 또한 아프고 가난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제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다.

그런데 이때 유념할 것은 전도 대상자를 골고

루 선택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도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 환자나 노약자 등 어느 한쪽에만 치우친 전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전도가 돼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어떻게 전도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전도된 후에도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살펴야 한다.

04 상대의 관심사에 접근해 영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한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에 먼저 말을 건네시고 영적인 일들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하셨다. 이처럼

영적 전도의 좋은 방법은 상대방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또한 문제 해결방법을 알려 주어 주님을 향해 구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지 그 길을 제시해 주면서 치료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만일 사업터에 문제가 있다면 사람의 지혜와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 등을 권하면서 능히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한다. 이처럼 각 사람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마음을 같이 하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05 전도한 영혼들을 갈무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온 사람이 믿음의 반석에 서기까지는 기도와 심방, 상담 등을 통해 믿음

이 성장하도록 계속해서 살피 주어야 한다. 또한 말씀을 잘 양식 삼아 시험, 환난에 빠지지 않도록 돕고, 기관과 교구 식구들이 아낌없는 사랑의 행함으로 관심을 쏟아 주어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목

자를 바로 심어 주어 목자를 신뢰하고 순종해 신속하게 신앙의 뿌리를 바로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

<p>01 JANUARY 2015.1.25 ~ 1.31</p> <p>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p>	<p>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국 36-40 ■ 우리가 바라볼 것 ■ 의와 인과 신 2 ■ 예언 6 ■ 3차 영혼육 8-12 ■ 사랑 4-5 ■ 심고 거두는 법칙 1-4 ■ 영광 ■ 위로부터 난 지혜 1-3 ■ 요한계시록 강해 55 ■ 믿음을 책량하시니 13-17 	<p>GCN TV설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의 기도 (이수진 목사) ■ 마음의 향 2 (이미영 목사) ■ 영의 세계 27 (이희선 목사) ■ 예배 1 / 생명수 19 (신동초 목사) ■ MIS 강의 27 / 열 재앙 6 (정구영 목사) ■ 보석 같은 마음 (김수정 목사) ■ 변함없는 사랑 (천우진 전도사) 	<p>예능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32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15 ■ English 7 ■ 플로리스트 8 ■ 옛날 옛적에 1 ■ 창조와 과학 4 ■ 흥겨운 소리 3 ■ 만민 지킴이 5 ■ 모두 드려요 22 ■ 내 마음의 찬양 5 ■ 즐거운 요리 24 ■ 뷰티풀 라이프 4 	<p>해외성회 및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상 24 ■ 독일 연합대성회 1 ■ 2014 지역장, 조장, 구역장 교육 3-4 <p>1577-2073</p> <p>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p>
---	--	---	--	---

“맹독성 농약을 마신 시어머니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나셨어요”

아버가일 따망 성도 (37세, 네팔만민선교센터)



◀ 아버가일 따망 성도(가운데)가 이재록 목사 권능의 기도로 살아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사동생, 딸, 조카들과 함께했다.

2014년 10월, 아주버님으로부터 시골에 계신 시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받은 설움도 큰 데 다른 가족까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시어머니가 맹독성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시간이 지나서야 시어머니를 발견한 동서들이 급히 시골의 작은 병원으로 옮겨 위세척을 했지만 의식이 없는

위험한 상태여서 카트만두 시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옮겨주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네팔만민선교센터 이해천 담임 목사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함께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자동응답서비스 환자를 위한 기도를 일곱 차례 받았습니

다. 그리고 가족을 설득해 큰 병원으로 이동 중이던 구급차

를 네팔만민선교센터로 오게 해 가족 모두 다시 자동응답서비스 환자 기도를 일곱 차례 받았지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의식이 돌아와 사람을 알아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뒤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의사선생님은 중환자실에서 보름은 있어야 한다고 했지요. 하지만 저는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았으니 분명 하나님께서 시어머니를 치료해 주신 것을 믿었습니다.

과연 검사 결과는 심장과 혈압, 소변 등 모든 검사에서 어떠한 독성도 찾지 못했다는 것이었고, 의사선생님은 “아주 위험한 맹독성 농약을 마셨는데 어떻게 정상일까?” 하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놀라워했지요. 시어머니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셨고, 아직 거동이 불편하고 복통과 두통도 있지만 그날 바로 퇴원해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다음 날, 안식일이 되어 교회에 갔습니다. 이해천 담임 목사님은 시어머니에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은 손수건(행 19:11~12)으로 몇 차례 기도를 해 주셨고, 시어머니는 하나님의 권능이 담긴 무안단물을 마시며 신속히 호전돼 건강을 되찾으셨지요. 할렐루야!

사실 시부모님은 저희 가족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셨습니다. 시아버님은 한때 승려 일을 하시며 집을 떠나 수행도 하셨지요. 그러면서도 매일 술을 많이 마시고 늘 가족과 싸우시니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항상 기도하며 때를 좇아 시부모님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로 주님을 영접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신앙생활의 참맛을 아니 행복합니다”

이정길 집사 (81세, 1세대 7교구)

저희 부부는 요즘 하루하루를 즐겁고 보람 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닫고 체험함으로 신앙의 참맛을 느끼며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제가 만민중앙교회에 출석하기 전에는 부산에 있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다닌 것이기에 여전히 친구들과 어울려 술 마시고 고스톱 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이를 안타까워하던 아들 이석규 목사(2세대 14교구 부교구장)는 서울로 올라와서 신앙생활 하기를 바랐지요.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아들의 간곡한 부탁이기에 “집이 매매가의 최고 가격으로 팔리면 상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팔리지 않던 집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받은 뒤 최고가로 매매된 것입니다. 서울

에서도 하루 만에 좋은 집이 나와 이사할 수 있었지요.

2009년 7월 12일부터 우리 교회에 출석하면서 당회장님의 설교 말씀이 제 신앙을 깨우니 삶은 점차 달라졌습니다. 각종 예배 참석은 물론, 식사 때마다 한 잔씩 마시던 술도 끊고,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며 깨우친 말씀들을 실천하고자 노력했지요.

그러던 중, 하나님 권능을 체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10년 된 하지정맥류로 오른쪽 종아리 부위가 자렁이가 서로 엉켜 뒤틀린 것처럼 보기 흉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를 치료받자 ‘2014 만민 하계수련회’를 앞두고 창세기 강해에 나오는 ‘생명의 씨에 관한 설교’를 다시 보며 준비하고, 8월 4일 첫날 교육 은사집회 시 믿음으로 기도를 받았지요. 그런데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다음 날, 옷을 입는데 하지정맥류가 사라져 그 흉칙한 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의 경우에는 하지정맥류로 정맥 안에 있는 판막이 망가져 혈관이 뒤틀린 상황인데, 당회장님의 기도로 레이저 수술 없이도 판막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아내 김덕순 권사도 2년 동안 고생했던 우측 팔꿈치 통증을 치료받았지요. 이처럼 참된 신앙생활의 길을 알려 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한 삶을 살아가 수 있도록 축복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하지정맥류를 치료받은 이정길 집사는 아들 이석규 목사의 인도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며 강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국내 지교회, 지정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선교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4182-419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동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선교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서량만민교회 충북 괴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용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선교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도로 529-32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선교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로 409-5 3층 ☎054)281-2468, 010-9773-701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선교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만민선교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광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3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선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선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역산로 22, 은성빌딩 5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인천지성선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8927-2073
- 김단지성선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7133-9770
- 분당지성선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선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선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우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선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31)635-9103, 010-9458-3922
- 수원지성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이천지성선 경기도 이천시 충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선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